전편의 기억은 잊어라

블록버스터 '속편의 공습'

터미네이터-미래 전쟁의 시작

5년만에 다시 돌아온 '터미네이터'

어린이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는 '해리포터'

그리고 '트랜스포머' '엑스맨' 등 상반기 개봉

스펙터클한 화면·탄탄한 스토리 기대

탄탄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화면으로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던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속편이 속속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5년만에 다시 돌아온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비롯해,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던 '해리포터' 시리즈, '트랜스포머'와 '엑스맨' 등 그 면면이 화려하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2'(5월 개봉 예정)는 한국 개봉 당시 5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벤 스틸러가 주연을 맡았으며 유쾌한 모험이 벌어지는 공간이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워싱턴 스미소니언박물관으로 변경됐다.

전작에서 역사적인 시대를 두루 소개했었다면 속편에서는 마피아 알 카포네, 나폴레옹, 파라오 등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해 야간 경비원 래리와 즐거운 모험을 전개한다.

'터미네이터-미래 전쟁의 시작'은 5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3편까지 계속 출연했던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대명사 아놀드 슈워츠 제네거가 빠진 대신 '다크 나이트'의 주인공 크리스천 베일이 주인공 존 코너로 출연한다. 크리스천 베일은 '터미테이터 미래 3부작'인 5, 6부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2018년 '심판의 날' 이후 폐허로 변해버린 지구에서 인간 저항군을 결성해 터미네이터 기계 군단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미래 전쟁의 시작'에는 지금껏 시리즈에서 한번도 공개된 적 없는 T600과 암살 모터사이클 등 다양한 살인 로봇이 등장한다.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는 7월 개봉 예정이다. 매년 한편씩 개봉됐지만 지난해 잠시 숨고르기를 갖은 터라 어느 때보다 기다리는 관객이 많았던 작품이다.

대니얼 래드클리프, 엠마 왓슨 등 전작 시리즈의 주인공들은 어느새 호그와트 마법학교 6학년생이 됐다. 해리포터는 론의 여동생 린에게 끌리고 헤르미온느는 론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등 이성에도 눈뜨게 된다.

국내 개봉 당시 75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개봉 외화 최고 신기록을 세웠던 '트랜스포머'의 두번째 시리즈 '트랜스포머-패자의 역습'은 6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전작의 감독 마이클 베이와 주인공 샤이어 라버프가 다시 호흡을 맞춘 '패자의 역습'은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샘을 잡기 위해 지구를 침략한 디셉티콘과 이에 대항하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오토봇 군단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

팬들의 관심 사항은 바로 새롭게 등장할 트랜스포머들. 모터사이클을 굴리는 여자 로봇 알시 등 신종 로봇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4월말 관객들을 찾아오는 '엑스맨 탄생-울버린'은 3편까지 이어온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울버린의 탄생 스토리를 되짚는 작품이다. 휴 잭맨이 울버린으로 출연하며 리브 슈라이버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그밖에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3-공룡시대'도 여름방학 시즌에 관객들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엑스맨 탄생-울버린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아이스 에이지3-공룡시대

주목! 이 영화

인터내셔널

타락한 금융 자본 추적하는 형사와 女 검사

타락한 금융 자본을 추적하는 형사와 여검사의 활약상을 그린 스릴러물이다.

인터폴 요원 루이 샐린저는 국제적인 범죄와 전쟁의 배후 세력인 은행 IBBC를 추적하던 중 은행 관계자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빼내려던 동료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다.

살인 사건이 IBBC 은행과 관련이 있다고 느낀 그는 맨해튼 지방 검사관 엘레노어 휘트먼과 공동 수사에 나서지만 관련자들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IBBC의 실체에 다가갈수록 희생자는 늘어만 간다.

두 사람은 IBBC의 운명이 걸린 무기 거래를 가로막아 은행을 파산시키려 하고 은행측은 강력하게 저항하는데….

영화 속 IBBC 은행은 1970년대 파키스탄에 세워진 은행으로 돈세탁과 무기 거래, 첩보 수집, 테러지원 등을 했던 BCCI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클로저'의 클라이브 오언과 '킹콩'의 나오미 왓츠가 주연을 맡았다.

베를린, 뉴욕, 리옹, 이스탄불 등 세계 각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션이 눈길을 끌며 특히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세트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